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9.05.14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광주 「총괄건축가」 제도의 이해와 성공을 위한 제언

03 종합

사랑에서 _ 건축과 신뢰

법령소식

건축사 만평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주최, 제3회 호남지역건축사골프대회 성료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의 안전 도모 위해 안전모 무상 지급
광주광역시, 초대 총괄건축가에 함인선 교수 위촉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국공립병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과 MOU 체결
2019년 전라남도 건축 관계자 워크숍 성료
전남 순천시, 전국 유일 '스마트시티 분야'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주관, 제1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전북건축사회,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본지 추원호 논설위원, '신인문학상'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

10 설계경기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11 종합뉴스

전남대 고성석 공과대학장, 대한건축학회 학술상 수상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2019년 신인 건축사 편집위원 위촉
2019한국건축문화대賞 작품공모

12 독자광장

한 편의 시 _ 4월이 가면

책 소개 _ 인간실격

세상사는 느낌 (답사기)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해당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개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총괄건축가」 제도의 이해와 성공을 위한 제언

2019년 4월 23일 광주시의 첫 번째 총괄건축가로 함인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되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도시의 수월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공행정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이미 서울, 부산 등 대도시뿐 아니라 경북 영주시도 운영하여 공공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은 다른 도시의 선례를 등에 업고 닦을 올린 광주의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하며, 아직은 광주에 낯선 이 제도에 대해 건축 및 도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총괄건축가 제도의 도입배경, 추진근거 및 역할, 운영방식을 요약하고 광주 총괄건축가 제도가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역 전문가의 자세를 제안하고자 한다.



유우상 논설위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usyoo@chonnam.ac.kr

- 대한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회장
-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
- 광주폴리3 큐레이터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
- 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장

■ 도입배경

먼저 '건설의 시대'에서 '건축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과거 도시의 팽창이나 성장의 시기가 끝나고, 안정과 관리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공 및 민간의 관점에서 도시의 건축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변화와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대적인 역할이 필요해졌다. 둘째, 오늘날은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통합디자인이 추구되는 시대이다. 이를 위해 개별 프로젝트별로 막혀 있는 사업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다양한 사업 주체들과 상호협력하고 소통하여 장소 중심의 통합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전체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에 기여할 능력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총괄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추진근거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건축기본법 제23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민간전문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 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 운영방침

위에서 설명한 건축기본법에서 주어진 총괄건축가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상 총괄건축가에게 몇 가지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첫째, 총괄건축가는 건축 및 도시 등 공간 환경과 관련된 부서 간의 협력과 통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건축물과 주변 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부서 간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이루어내고 사업내용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자문 역할이다. 총괄건축가는 해당 자치단체의 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리·문화·역사 등의 관점에서 주요 프로젝트의 건축 디자인

및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 제시가 가능해야 하고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공간 환경과 관련된 위원회,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른 도시 간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주 총괄건축가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제언

이제 첫발을 댄 광주의 총괄건축가 제도가 빨리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의례 그렇듯이 총괄건축가 제도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에 공공과 민간 부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촉된 총괄건축가는 행정부, 지역정치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이해당사자와 일반 시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런 소통과 교류를 통해 총괄건축가의 통합·조정 역할에 대한 오해와 기존 건축가들의 기회 박탈 우려가 경감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총괄건축가 위상 정립과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도입 초기인 현재 광주시에는 총괄건축가의 행정부 내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총괄건축가는 도시건축정책 및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시장 또는 부시장과 수시로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시장급의 위상과 결재 권한, 간부회의 참석 등이 문서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총괄건축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 지원 조직이 필수적인데, 시장 직속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을 설치하여 정착시킨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서울시와 광주시 규모가 다르니 처음부터 그런 지원조직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가는 점진적 확대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 올해 세계수영대회의 종료 시점이 총괄건축가 지원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는 원호사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을 함께 묶어 지원조직으로 신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광주의 총괄건축가 제도는 광주시장을 비롯한 행정부의 견고한 지원과 신뢰로 시작되었지만 광주의 건축과 도시 전문가의 협조 없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불가능하다. 건축과 도시 디자인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새로 위촉된 총괄건축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힘을 보태주는 건축계의 호의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총괄건축가 제도를 통해 광주의 건축·도시 환경의 공공성과 수월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당신의 공사감리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감리자 필수앱!! 터치 완성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스마트감리앱



PC로그인 www.archim.kr 콜센터 02 3462 1336
[문의] 이기상 건축사 (010) 8276 6158



사랑에서 _ 신네 번째

건축과 신뢰

신뢰는 한자로 믿을 신(信), 힘입을 려(賴)이며 영어는 Trust, 독일로는 Trost로 표기한다. 모두 믿고 의지하며 위안, 평안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8·90년대 우리 경제 발전과정에서 건설의 역할은 더욱 많은 고용 창출과 GDP 상승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속도를 강조하는 풍토 속에서 시스템의 신뢰는 적당히 너그러이 넘어가는 허점을 보여 왔고, 안전 불감증과 함께 사회 신뢰도 추락으로 국가경쟁력 면에서 저평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자본보다 문화와 함께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신뢰 검증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하게 한다. 소자본은 보다 많은 기회비용을 지급하여야 성장하는 반면 상대적 대자본은 소자본을 잠식하며 더 빠르게 보다 쉽게 부를 축적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평가에서도 기술력과 재능, 발전 가능한 역량, 공동체를 위한 사회기여도가 아닌 자본의 총량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 인해 사람,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지향하는지, 바람직하지 않은 소수의 집단화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여야 한다.

건축사는 자본이 부동산에 투입되는 흐름 속에 노출되어 있다. 건축물이 지어진 후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여다보면 용도에 따라 소비 지향적 건축과, 생산적이며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건축이 있다. 이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도와 연관된다. 자본의 크고 적음을 떠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누적되어 집단이 되고 이는 지역, 나아가 한 나라를 평가하는 신뢰 지표의 대상이 된다.

건축사는 건강한 사회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건축을 투자의 대상에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 건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건축을 영위하는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며 계몽인 지시킴으로써 건축적 사회운동이 건강한 사회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의 소유는 소수이나 영위는 다수인 공동체적 사고 접근과 잘못된 판단이 사회적 독선을 낳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사를 믿고 힘입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할 때 시민은 위안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건축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천십구년 오월 구일 마로로 67
자문위원_정명환 건축사(a2700@hanmail.net)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공포

▶ 개정 이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 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3조제4항·제5항 및 제111조제5호의2 신설).
- 나.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일정한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 가능한 창의 설치 및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 가능한 표시 의무를 규정함(제49조제2항, 제49조제3항 신설).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함(제79조제5항 신설).
- 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제80조).
- 마.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8조제1항, 현행 제110조제10호 및 제11호 삭제).
- 바. 종전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8조제1항, 현행 제111조제3호의3 삭제).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편집위원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설혜순, 이원규, 정영진, 임현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 | |
|----------------------|----------|
|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 350,000원 |
| (주)마이다스이티 | 300,000원 |
| 법무법인 법가 | 100,0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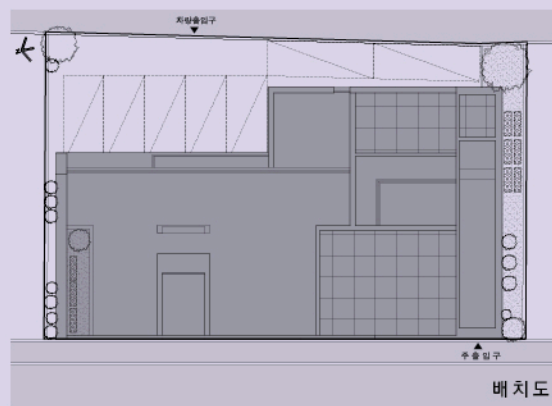
-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수완재

정명환 건축사 /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마곡로 67, 지움컴퍼니 / Tel. 062-375-2800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138 / 대지면적 : 461㎡ / 건축면적 : 259.97㎡ / 연면적 : 998.22㎡
건폐율 : 56.39% / 용적률 : 216.59%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도시와 자연, 그 경계에서 균형

도심지의 외곽과 자연의 경계에 자리한 대지는 택지개발에 의해 도회적 주변환경과 자연의 목가적 풍경이 공존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웃하는 건축물은 상업건축물로 채워지고 있으나 건물 내부에서 바라보는 외부의 풍경은 나지막한 산의 풍경이 창문의 프레임 속에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기에 충분한 풍경은 건축과, 사람, 자연이 함께 공존하기를 바란다. 건축은 콘크리트의 물성이 묻어나는 하나의 덩어리에서 시작한다. 비우고 덜어냄으로써 빛이 들어오고 이러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빛은 다양한 음영을 만들어 낸다. 그곳에 바람이 머무른다. 빛의 변화가 주는 유기적 건축은 우측면의 더블스킨에서 극대화되고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규정하고 있다.



|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교육 신청바랍니다.

(1) 실시근거 : ①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2) 실무교육 계획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예정)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5월	28일(화) 14:00~16:00	전문	건축관련 분쟁사례	박철 변호사 법무법인 법가	5층 대강당	2시간	30,000원
	28일(화) 16:00~18:00	전문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특징 - 광주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박태순 과장 NH광주전남 도시재생사업부		2시간	30,000원
6월	25일(화) 14:00~15:00	윤리	카네기인간경영리더십	김장길 원장 카네기인재개발원		1시간	10,000원
	25일(화) 15:00~18:00	전문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	박일수 센터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3시간	45,000원
7월	23일(화) 14:00~16:00	전문	BF인증제도와 인증기준의 이해	백종근 인증실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2시간	30,000원
	23일(화) 16:00~18:00	전문	토질조사 및 사고사례 대처방안	허신영 토질기술사		2시간	30,000원

(3) 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4) 출석인정

- ①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②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출석체크

- ①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6)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③ 교육과정안내 :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에서 "광주건축사회" 선택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건축사회 주최, 제3회 호남지역건축사골프대회 성료

지난 4월 18일 전남 무안컨트리클럽에서... 3개 시·도 건축사 80여 명 참가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가 주최하는 호남지역건축사골프대회가 지난 4월 18일 전남 무안컨트리클럽에서 대한 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정명철 이사,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전북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등 3개 시·도지역 건축사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회장 박재홍)가 주관하였으며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경품과 시상금, 기념품 등이 마련되어 전달되는 등 성대하게 진행됐다.

한편, 제3회를 맞이한 호남지역건축사골프대회는 광주·전남·전북지역 건축사 상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난 2018년 6월 전북건축사회 주최로 제1회 대회가 시작되었다.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의 안전 도모 위해 안전모 무상지급

건축사회 홍보 효과도... 지난 5월 7일부터 1인당 1개 지급, 추가 제작도 진행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5월 7일부터 회원들의 공사현장 방문 시 안전을 도모하고, 건축사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건축사 로고 및 단체명이 새겨진 안전모를 회원 1인당 1개씩 무상 지급(사무국 방문 수령)하고 있다.

지난 3월 이사회회의에서 임원들로부터 안전모 제작 요청에 따라 4월 이사회회의에서 제작 및 무상지급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함에 따라 시행된 사항이다.

이 외 안전모 추가 구입을 희망하는 회원사에 사전 접수를 받은 결과 약 100여 개의 추가 제작 의뢰가 있는 등 큰 호응도 잇따랐다.

강현구 회장은 "이번 안전모 제작은 이사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발굴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바둑동호회, 광주·제주건축사 바둑동호회 교류전 개최

지난 4월 12일 전남 강진 주작산 휴양림에서... 양 시·도건축사 30여 명 참석



광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회장 김용주)는 지난 4월 12일 전남 강진 주작산 휴양림에서 제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회장 변인구)와 친선 교류전을 개최했다.

이날 교류전에는 양 시·도건축사 3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이 격려차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했다.

광주·제주건축사 바둑동호회 교류전은 바둑을 통해 광주·제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광주건축사회, '제3회 광주건축사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난 5월 10일, 서구 치평동 전천후게이트볼구장에서... 400여 명 참석



광주건축사회가 주최하고 광주게이트볼협회(회장 송양식)가 주관하는 '제3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5월 10일 서구 치평동 전천후게이트볼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직원 10여 명과 광주광역시게이트볼협회 송양식 회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게이트볼동호회 36개 팀 400여 명이 참가했다.

강현구 회장의 대회사와 송양식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공정한 경기를 다짐하는 선수대표 선서와 초청 내외빈 시구로 기념식을 마무리 지었으며, 본격적으로 경기가 종일 진행됐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과 '따뜻한 나눔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제2회 광주건축대전' 개최

전국 규모 상금의 일반공모와 아이디어공모로 진행... 5월 23일부터 등록 접수 등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가 주관하는 '제2회 광주건축대전'이 오는 5월 23일부터 등록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광주건축대전은 전국범위의 공모전으로 전공학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전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 2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일반공모전(1차 5월 23일~5월 29일, 2차 6월 27일~7월 3일 등록·접수)은 '공유공리(共有公利)'라는 주제를 제시해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현재의 건축적 상황에서, '공유된 가치와 공동의 이익'이라는 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다.

아이디어 공모전(7월 1일~ 7월 3일까지 등록·접수)은 제1회 대전과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공간을 다양하고, 새롭고, 자유롭게 디자인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대상 상금은 일반공모전 700만 원, 아이디어공모전 100만 원이다.

부대행사로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기획전시전, 심포지엄(김찬중 건축가) 등이 9월 25일부터 4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대전 홈페이지(<http://gwangjuprojec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초대 총괄건축가에 함인선 교수 위촉

건축·도시공간정책 자문, 공공건축 등 총괄 조정 역할... 지역건축계와 협력 기대



광주시는 지난 4월 23일 '광주 총괄건축가'로 한양대학교 함인선 특임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총괄건축가는 건축·도시디자인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로, 건축·도시공간정책 및 전략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을 맡는다.

이번에 위촉된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서울대 학·석사 출신으로 명지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 POSCO A&C 수석기술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정의와 비용 그리고 도시와 건축' 등 9개 저서를 저술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는 함인선 총괄건축가의 서울시 행정참여 경험을 토대로 건축 기본조례를 개정해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도 도입해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광주건축사회 한마당 페스티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 시 : 2019. 5. 25. (토) 10:00~15:00
- 장 소 : 동강대학교 실내체육관(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 대 상 : 광주광역시 건축사 회원 및 가족

광주 회원동성

- 변경(상호)
 - 김은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도 → (주)건축사사무소 아도
- 변경(상호, 소재지)
 - 양관식 건축사 / NS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170, 12층 1202호
- 변경(소재지)
 - 김정만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건 / 광주 광산구 신창로72번길 22, 4층
 - 김종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아 / 광주 서구 운천로103번길 4, 2층
 - 이수진 건축사 / 미래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40, 2층
- 결혼
 - 문출성 건축사 / 영창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5월 11일(토)
 - 신정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장남 결혼 - 05월 18일(토)

골드타워

김성수 건축사
한양 건축사사무소
전남 여수시 도원로 277
Tel. 061-683-4292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98-10, 98-11 / 대지면적 : 878.30㎡ / 건축면적 : 784.06㎡ / 연면적 : 4,893.10㎡
건폐율 : 89.27% / 용적률 : 483.47%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전남건축사회, 국공립병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 4월 23일 장흥에서... 회원 및 직원, 직가족 진료 시 진료 할인 제공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4월 23일 전남 장흥의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원장 성강경) 세미나실에서 국공립병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연준 회장을 비롯한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성강경 원장과 도회 임원 및 병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연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이 전남지역 화원과 가족, 그리고 회원사의 직원까지 많은 분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대내외적으로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로 전남도회 회원사와 회원사의 구성원(회원사의 직원), 구성원의 직가족은 해당 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

2019년 전라남도 건축 관계자 워크숍 성료

지난 4월 25일과 26일 전남 구례에서... 건축사 및 건축관계공무원 160여 명 참석



전라남도 건축 관계자 워크숍이 지난 4월 25일과 26일 전남 구례 The-K 지리산가족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 워크숍은 주택·건축 정책 현안 공유와 전문가 특강을 통한 건축 관계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하여 건축 행정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남지역 건축사 80여 명과 전남도 내 도시·군 건축, 주택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김석기 과장의 '중앙·지방정부 간 주거복지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김철 과장의 '농촌정주 지원 및 주거정책 방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재남 차장의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사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이성수 사무관의 '건축방재 이론과 실제' 등의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워크숍 말미에 국가 건축·주거복지정책 추진 및 전라남도 건축 발전 방향의 열띤 토의가 진행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남 순천시, 전국 유일 '스마트시티 분야'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유니버설 디자인(UD) 기반의 Eco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전남 순천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시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통해 상권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순천시는 이번 순천역세권 주변 20만㎡를 대상으로 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동시에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선정돼 5년간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4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고 4월 중순 밝혔다. 이로써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스마트시티사업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 34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대상 지역의 사전 현장 조사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소셜데이터와 유동인구, 민원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은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스마트 로봇을 생태비즈니스센터에 설치하는 '생태관광 정보 서비스'와 동천변 국가정원플랫폼에 Eco 소망나무 조형물과 AI 콘텐츠를 설치해 추억이 담긴 사진과 소원을 소망나무에 보관해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는 '타임캡슐 서비스', 관광객들이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AR Street', '스마트 관광안내소'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전남 나주시, 근대문화유산 문화재지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나주금융조합, 나주협동상회, 금성교 등 1910년대 건조물 5개소 조사·연구

전남 나주시는 지난 4월 초 시청 소회의실에서 근대문화유산 문화재지정 학술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재조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착수한 이번 용역은 나주시 관내 1910년대 축조된 건조물의 건축기법, 구조물 가치, 역사적 상징성 등을 조사·연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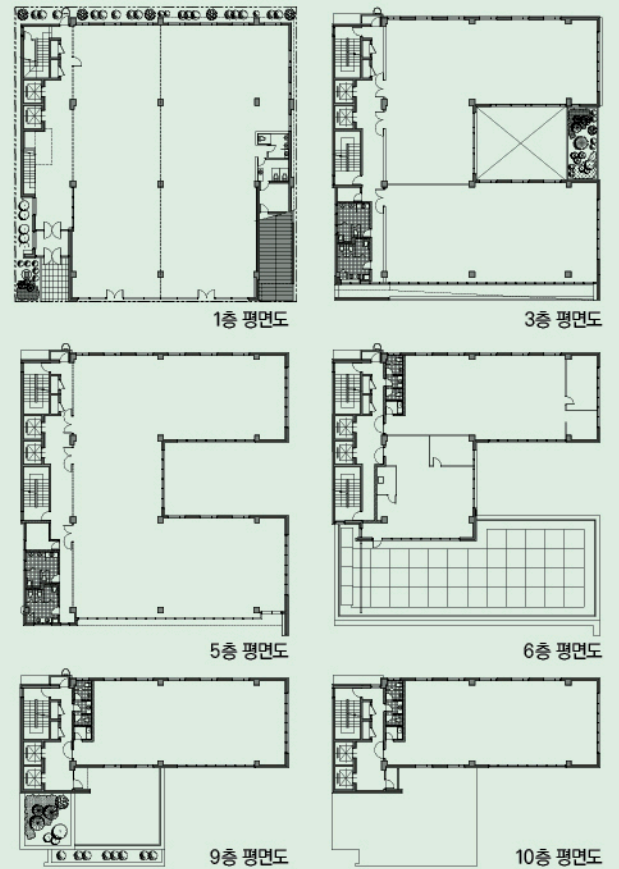
근대문화유산은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 기간에 축조된 역사·문화·예술·사회·종교 등 각 분야의 기념적 의미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유물 등을 뜻한다.

시기상 건조물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때 지어졌거나, 개인 소유에 따른 훼손, 처분 등으로 보존상 어려움이 있어, 문화재청은 지난 2001년부터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신용주 교수의 발표를 통해, △나주금융



지금은 폐지된 건축법 '도로의 사선 제한'을 건물 외관에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디자인 컨셉으로 도로사선제한으로 셋백되는 저층부의 벽체 선을 선형적인 디자인 요소로 인식하지 못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중앙부 매스를 절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쾌적한 주변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평면계획을 구성하였다. 상업적 목적에 따른 건물 용적을 극대화하여 중앙부 매스를 오픈하여 층수를 높이는 데 활용함과 동시에 사무환경의 쾌적함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외부 입면은 주재료인 인도사암으로 설정하였고 건축물의 전면부가 서향으로 일조에 의한 인도사암의 거친 면은 하나하나가 다른 모습으로 비치는 모습을 기대하였다.



조합(중앙동 31-2), △금남금융조합(금계동 19), △나주협동상회(중앙동 50-1), △구진포 터널, △금성교 등 1910년대 축조물 5개소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상징성, 등록 문화재 신청 여부 등을 다뤘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신간회 나주지부로 사용했던 나주협동상회는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가들의 거점 공간으로 나주의 근대를 대표하는 장소로 꼽혔다.

또, 나주금융조합에서 최초로 발견된 설계도서인 '현척도(現尺圖)'는 당시 유행했던 설계 및 건축기법을 엿볼 수 있는 사료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제강점기 1910년 개설된 금성교는 산업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하천 폭 확장으로 교각 등이 노후화되어 철근콘크리트 교각과 상판을 증설해 나주천 사이를 잇고 있다.

금성교의 경우, 원형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 상태로 존치할 경우 노후 훼손의 우려가 있어, 나주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 역사적 상징성 갖춘 건조물로서 교량의 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10년대 광주-나주-목포 등을 경유하는 호남선의 주요 통로로 활용된 구진포 터널과 현재 외과의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금남금융조합도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용역 최종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올 하반기 근대문화유산 5개소에 대한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02년 구) 나주경찰서와 노인천주교회를 비롯해 국내 유일 내륙등대인 영산포등대(2004), 남평역(2006)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등록 관리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

개별주택 3만9,589호, 공동주택 6만8,185호...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전남 여수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3만9,589호, 공동주택 6만8,185호다.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비교 평균 5.88%가 올랐다. 지난해 가격 상승률은 4.38%였다.

시는 관광객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것으로 여수시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기간 내에 여수시 세정과와 읍·면·동주민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적정 여부 재조사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TEL. 061-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목포시,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착수

4월 중순부터 주택 약 32개 동 사업 지원, 주택당 최대 336만 원 보조

목포시는 시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 중순부터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 시는 지난 2월 한 달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자를 신청받아 철거가 시급한 주택 32개 동을 선정했다.

슬레이트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다. 석면은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 반영구적으로 몸속에 남아 계속해서 손상을 주며 석면폐증, 폐암과 악성중피종,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목포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한다. 사업비 중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붕 개량비로 일부를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지붕개량 비용을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올해 주택 약 32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2018년까지 6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 371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바 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상반기 실무교육 일정

1. 교육 종류 및 인정시간 : 전문교육 4시간
2. 수강신청기간 : 2019. 5. 8(수) ~ 5. 17(금)
3. 교육 일정 및 장소

일자	시간	강의명	강사	장소
05.28 (화)	13:00~14:30	최신 단열 설계 및 시공기술	김용회 (주)스타빌 엔지니어링 대표	전남여성가족재단 204호 (구. 전남여성플라자)
	15:00~16:30	도시재생사업의 진단과 건축사의 역할	김종익 서울도시재생 지원센터장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30 TEL. 061-260-7300
06.05 (수)	13:00~14:30	최신 단열 설계 및 시공기술	김용회 (주)스타빌 엔지니어링 대표	조례호수도서관 3층 강의실
	15:00~16:30	도시재생사업의 진단과 건축사의 역할	김종익 서울도시재생 지원센터장	순천시 조례2길 31(조례동) TEL. 061-749-8891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문범준 건축사 / 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9-1
- 부고
 - 김성태 건축사 / 신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4월 13일(토)

전북건축사회 주관, 제1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완산체련공원 등지에서... 전국 24개 팀 750여 명 참가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 주관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주 완산체련공원 및 고덕운동장에서 '제1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번 축구대회에 전국 24개 팀 및 관계자 등 75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4월 26일 완산체련공원 운동장에서 개최된 개막식 행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대한건축사 축구연합회 이철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임원,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심신의 새로운 다짐의 장이 되는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축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공공적인 책무를 진 건축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것임을 강조하며, 제15회 전국건축사축구대회를 통하여 건축사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길환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맛과 멋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주에서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전주의 멋과 향기를 고스란히 담은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 가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대한건축사 축구연합회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건축사 축구동호인회 이성열 회장은 조촌초등학교 축구팀에 100만 원과 전주 해성중학교 축구팀에 200만 원, 전주공업고등학교 축구부에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축구 꿈나무 육성지원금'으로 전달하며, "건축전문가 단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클럽 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건축사회,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오는 5월 18일 전주 비전대에서... 회원 및 전북도 내 건축직 공무원 등 참가대상

전북건축사회는 매년 전라북도 내 건축인(건축직, 기술직 공무원 및 건축사)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민관의 유기적인 발전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올해는 5월 18일 전주 비전대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 참가대상은 회원사를 비롯한 전라북도청 및 시·군 건축직공무원, 전라북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등이다.

올해 행사에는 축구경기를 비롯하여 줄다리기와 레크레이션,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장르와 많은 경품이 걸

려있어 어느 해보다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건축사회 관계자는 "각 시·군 관내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의 동반 참여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 추원호 논설위원, '신인문학상'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

지난 5월 4일 서울 중랑문화원에서 수상... 건축사이자 서예가로도 활발한 활동



본지 논설위원이자 전북에서 서예가로 잘 알려져 있는 제당 추원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가 (사)시인들의 샘터문학이 시상하는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본격 등단했다.

그동안 추원호 건축사가 열심히 습작해 온 '경칩', '질긴 끈', '묵련 꽃', '납매꽃', '육신의 못' 등 5편의 시가 당선작에 올랐고, 지난 5월 4일 서울 중랑문화원 소공연장에서 상을 수상했다.

앞서 (사)시인들의 샘터문학은 시·시조·동시·수필·평론 등 5개 부문에 걸쳐 '2019년 샘터문학상 및 신인문학상 공모'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3월 31일까지 접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심종숙 샘터문예대 교수 등이 심사를 맡아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한편, 추원호 건축사는 서예가로서도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운고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을 활동하며, 전국서화백일대상전 휘화대회 대상, 전주시 예술상 대상 등의 다채로운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전북 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이·취임식 및 이웃돕기 후원 성금 기탁

제2대 홍영식 회장 취임, 완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 기탁



전북건축사회 완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4월 23일 전북 완주 삼례 비비정 농가 레스토랑에서 초대 박용규 회장(소망 건축사사무소) 이임식과 제2대 홍영식 회장(하늘 건축사사무소)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전주 참병원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주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5길 5-4, 2층
Tel. 063-276-0020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22 외 3필지 / 대지면적 : 1,087㎡ / 건축면적 : 623.88㎡ / 연면적 : 3,136.06㎡
주용도 : 의료시설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고내식성발색강판, 고밀도목재패널

를 비롯하여 완주지역건축사회 회원, 전라북도건축사회 임원, 각 시·군지역 건축사회 임원 등 8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제1대 박용규 前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완주지역건축사회는 완주군민의 복지 향상에 쓰여지길 바란다며 이웃돕기성금 300만 원을 완주군에 기탁했다.

전주 원도심, 주민주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력 불어 넣는다 시·주민 주도 구상 사업계획 바탕으로 '2019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참여

주민들이 모여 낙후된 전주 원도심 마을을 스스로 바꾸기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전북 전주시는 올해 주민주도로 구상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했다고 지난 4월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말 전국 50개 정도의 사업을 최종 선정해 각각 1억 원~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중앙동 주민화합공동체', '물왕말 마을공동체', '진북동 마을재생사업추진단'의 3개 단체와 함께 공모에 신청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마을공동체 재생', '물왕말 행복한 커뮤니티 가든 만들기', '마을동화를 활용한 책마을 재생사업' 등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이 공모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주민공동체의 지원과 주민공동체 확대 및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덕진동 마을계획추진단도 올해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스스로 제안한 '공동체 재생을 위한 덕진동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농촌·도시 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농촌은 1년, 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대상

전북 익산시가 화재, 해충 서식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농촌 및 도시의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26일 시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촌과 도시지역 빈집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빈집정비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도시는 2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시는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300만 원, 기타 지붕은 동당 150만 원까지 빈집철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시가 지금까지 접수받은 읍·면·동별 빈집정비 대상은 총 114동(농촌 94동, 도시 20동)으로 해당 빈집 정비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 남원시, 무허가 축사 관련 교육·컨설팅 실시로 조기 적법화 완료 추진 건축사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 추진... 1대1 컨설팅도



전북 남원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9월 27일)이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을 제고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30일 남원축협 회의실(3층)에서 적법화 관련 축량 신청 농가 및 미 진행 농가에 대하여 적법화 추진상황 설명, 적법화 사례 교육, 건축사와 축산농가

1대1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이행 기간 부여 농가는 463호로 그중 77농가는 완료하였고, 축량을 포함한 인허가 접수,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31농가이며, 약 11.8%에 해당하는 55농가는 아직도 미 진행 농가로 파악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주요 위반 유형으로 국·공유지 침범, 타인 토지 사용, 건폐율 초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 다양하고 복잡하며, 적법화 해소를 위해서는 토지 매입,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적법화 추진을 제고를 위하여 시, 건축사회,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 지원으로 적법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적법화 추진에 어려운 농가를 위하여 적법화 자금(융자금) 298백만 원을 20농가에 지원하여 미 진행 농가의 적법화 추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 의지와 추진 방향 설정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적법화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전북 회원동정

- 결혼
 - 이상규 건축사 / 일원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5월 11일(토)
- 부고
 - 유기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뿌리 / 모친상 - 04월 21일(일)
 - 강태원 건축사 / 에이앤티(A&T)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4월 27일(토)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개선과 공공을 위한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물 외관 및 리모델링 계획과 함께 전주시의 대표병원으로서 환자 중심의 첨단병원 이미지를 확립시키는 목적이 수반되었다. 기존 건물의 이미지를 혁신적 감각으로 변화시키면서 증축되는 건물은 기존의 건물과 통일성 있도록 계획하였고 상호 연결되는 부분은 경관을 고려하여 전면과 함께 조화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정과 비워진 공간은 연결을 통해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었고 건물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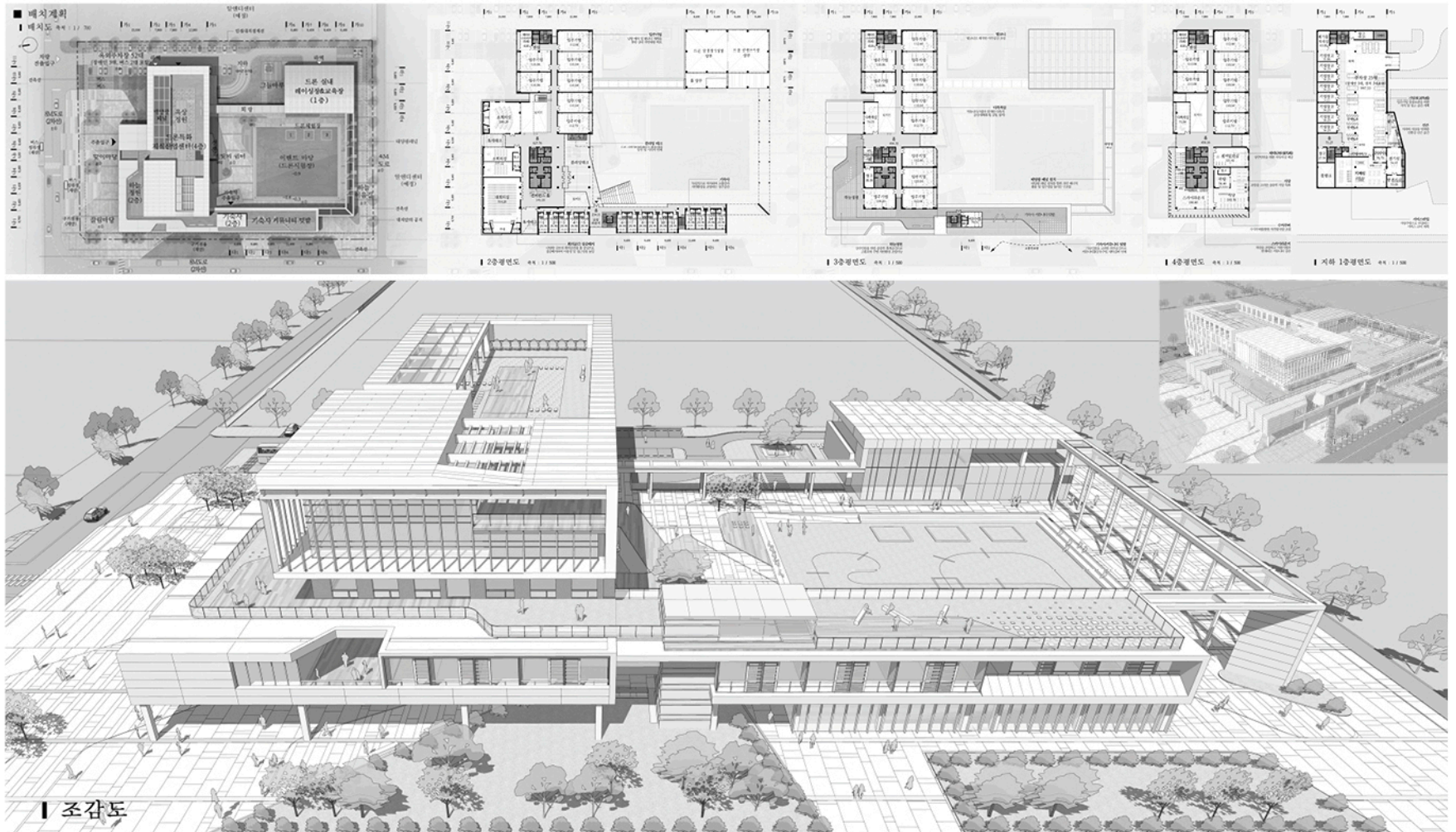
고흥 드론평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우리 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전체 무인기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집적 시설 건립을 통해 항공센터, 전남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여러 자원과 연계한 드론 기술 및 지식 창출의 창조형 기업혁신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심사위원 : 김영석(충남대), 김근성(경남과학기술대), 유방근(경상대), 유정환(서울과학기술대), 윤석현(경상대)
 오태원(호남대), 송은종(고흥군)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우수작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가작 : 건축사사무소 삼건
 + (주)도헌 건축사사무소
 *자료 미제출

- 대지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70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4,969.0㎡
- 연 면 적 : 11,156.0㎡(+5% 범위 내)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 용 도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 공 사 비 : 15,797,000천 원

당선작
 양병범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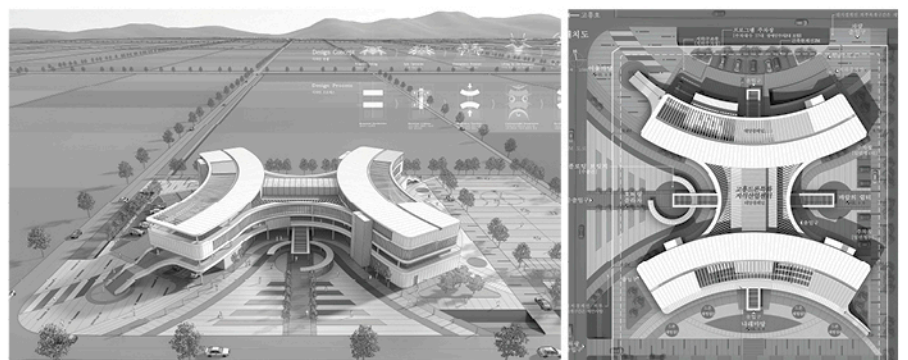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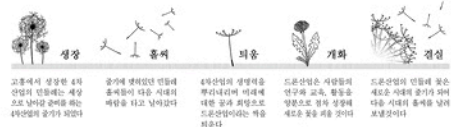


우수작

이주경 건축사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 정현아 건축사 /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민들레 흩씨되어...

고흥에 불어온 4차산업의 바람, 드론산업이라는 민들레 꽃을 피우고,
 띄운 흩씨 하나 하나에 꿈과 미래를 담아 날려보내리라.



전남대 고성석 공과대학장, 대한건축학회 학술상 수상

지난 4월 26일 고려대 과학도서관에서 개최된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에서...



전남대학교 고성석 공과대학장이 지난 4월 26일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에서 열린 2019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건축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건축학회 학술상은 건축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저작 및 발표를 통해 건축문화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이룩한 사람을 발굴하고, 진지한 연구·창작·실천을 권장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된 건축 분야 권위 있는 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성석 학장은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3년부터 현 대학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현재 한국건설관리학회 호남지회장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2019년 신임 건축사 편집위원 위촉

광주지역 건축사 2인과 전남지역 건축사 1인, 위촉식은 6월 중 예정



이원규 신임 광주편집위원
건축사사무소 이음건축



정영진 신임 광주편집위원
휘 건축사사무소



임현정 신임 전남편집위원
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본지 건축문화사랑 2019년도 편집위원회에 광주지역 건축사 2인과 전남지역 건축사 1인이 새롭게 합류했다.

4월 11일자로 선임된 신임 위원들은 광주지역의 건축사사무소 이음건축 이원규 건축사와 휘 건축사사무소 정영진 건축사, 전남지역의 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임현정 건축사이다. 이들은 1년간 신문의 발행과 관련한 취재 및 원고작성, 편집, 교정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편집위원 중 전남의 (주)금양이엔씨 건축사사무소 김미영 건축사는 내부 논설위원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올해로 마침표를 찍는 건축사예비시험... 5월 19일에 1차 시행

2회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2차 시험 접수는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구분	시험 일자	응시원서 접수
제1회 건축사예비시험	2019. 05. 19.(일)	만료
제2회 건축사예비시험	2019. 11. 17.(일)	2019. 08. 20.(화)~08. 27.(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건축사예비시험제도가 2회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첫 시험이 5월 19일 치러진다. 올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내년부터 5년제 전문학위 과정에 편입해 졸업하거나 인증된 대학원 전문학위 과정에 진학·졸업해야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30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5월 19일 홍익대와 잠실고교 등 서울 8곳 시험장에서 2019년 제1회 건축사 예비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은 내년 제도 폐지를 앞두고 보통 연 1회 치르는 시험을 2회로 늘렸으며, 국토부와 협회는 마지막 시험인 것을 고려해 11월 17일 한 차례 추가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2026년까지 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많은 수험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exam.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法家 공증인가 법가

▶ 공증업무, 송무업무, 등기업무, 신청업무

- 변리사
-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 광주변호사회 총무이사
- 법정문화발전협의회 위원
-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대표변호사

박철 / 朴哲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78번길 7
T . 062-233-8071
F . 062-223-5376
E . bubga8070@gmail.com
www.법가.com

2019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大賞은 우리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신인 등용의 장으로써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가고 있는 『2019한국건축문화 대상』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 부문

- 응모작품 :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임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응모 불가)
-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 공동설계의 경우 공동설계자(외국인 포함)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계획건축물 부문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응모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 신진건축물 부문

- 응모작품 : 만 45세 이하(5월 31일 기준)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중 본인 설계로 준공된 작품(신축, 증축, 대수선, 가설건축물 등)
- 응모자격 : 만 45세 이하(5월 31일 기준)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중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수상 경력자는 제외.
※ 공동설계의 경우 공동설계자(외국인 포함)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응모 방법

□ 준공건축물 부문

- 인터넷 참가신청 ☞ kraa.kira.or.kr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우편접수)
-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 심사 실시

□ 계획건축물 부문

- 작품 주제 : 2019, 우리 시대의 건축
- 인터넷 참가신청 ☞ kraa.kira.or.kr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우편접수)
- 1차 작품계획안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3차 심사 실시
- 1팀 3인 이내,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

□ 신진건축물 부문

- 인터넷 참가신청 ☞ kraa.kira.or.kr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우편접수)
-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 심사 실시

작품접수

□ 준공건축물 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9.4.15(월) ~ 6.13(목) 09:00~18:00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9.6.20(목) ~ 6.21(금) 09:00~18:00 **시간엄수**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계획건축물 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9.5.14(화) ~ 6.7(금)
- 1차 작품접수 : 2019.6.12(수) ~ 6.13(목) 09:00~18:00 **시간엄수**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진건축사 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9.4.15(월) ~ 6.13(목) 09:00~18:00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9.6.20(목) ~ 6.21(금) 09:00~18:00 **시간엄수**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http://kaa.ki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 편의 시 _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림

4월이 가면

누가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했나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4월
유난히 심했던 미세먼지
꽃의 향연속에 산불사건

개나리와 매화꽃 벚꽃지고
이제는 복사꽃 향기 필 무렵
어느덧 4월은 흘러간다

메마른 나무가지 끝
아기손 같은 연녹색 잎이
짙은 파란색으로 익어간다

푸르른 5월을 앞둔 4월 말
지난 한달동안 지나간 일
펼침처럼 돌려보다
점점 짙어가는 5월의 풍경을
어떤 희망의 세계로 들어갈지
기대해보는 마음이다.

세상사는 느낌 (답사기) _ 이정민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안녕! 민주주의 - ACC 전시회를 다녀와서

올해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아 4월 19일에 민주혁명을 기념하고자 '안녕! 민주주의'라는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다녀왔습니다.

여섯 개의 섹션으로 나눠진 전시는 한국 현대사 시대정신의 가장 큰 특징인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평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에서는 평화라는 말과 대조되게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권위, 일상에서'에서는 과거의 권력이 민중의 일상을 억압하고 통제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동, 인간의 조건'과 '노동, 삶의 조건'이라는 주제에서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업과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 주었습니다.

'애도, 너에게서 우리로'와 '광장, 동원에서 참여로'에서는 민주화를 꽃피운 무구한 선열들에게 감사하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우리임을 함축해 주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평화 시위를 하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찾기 위해 화염병을 들고 투쟁하던 민중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모습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시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 세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의 큰 목소리와 투쟁이 있었기에 이뤄진 것들인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찾기 위해 노력한 선열들에게 감사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선사하기 위해 사회적인 문제에 외면하지 않고 옳은 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 _ 김소희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인간실격

다자이 오사무 저 / 장현주 역 / 새움 / 2018. 08. 16.

끝도 없이 마음이 지쳐있을 때 나는 다자이 오사무가 생각이 난다. 인간실격을 읽었을 때 그의 비참한 영혼을 표현하는 것,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 죄로 느끼는 그의 글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의 끝인 절벽에서 있는 기분이 든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가 두 번, 세 번 다시 읽기도 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세상 누구보다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인간실격을 읽다 보면 주인공 요조, 그리고 다자이 오사무를 구분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그의 삶과 매우 닮아 있으며 그렇게 그에게 자신에 대한 애착을 보이기도 힘들 것이다. 내 말은 그냥 느껴진다는 것이다. 요조가 다자이 오사무라는 것을... 이는 그 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여운을 남기게 된다.

"어린 소녀의 서글픈 노랫소리가 환청처럼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불행. 이 세상에는 갖가지 불행한 사람이, 아니 불행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불행은 소위 세상이라는 것에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도 그 사람들의 항의를 쉽게 이해하고 동정해 줍니다. 그러나 제 불행은 모두 제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항의할 수 없었고, 또 우물쭈물 한마디라도 항의 비슷한 얘기를 하려 하면 넙치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전부, 잘도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하는군 하고 어이없어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세상에서 말하는 '방자한 놈'인 건지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너무 약한 놈인 건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던 구절이다. '세상 모두가 외면해서 또는 하게 될까 봐'라는 두려움에 외롭다고 느껴질 때 인간실격은 놀라게도 나를 다시 그곳에서 끌어 올려주었다. '아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미안하게도 나는 안도했다.

'내가 더 힘들어'가 아닌 그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글에는 알게 모르게 위로가 느껴진다. 정서적 자서전이라고 불리는 인간실격에서 두려움과 증오를 표현한 것과 인간을 향한 구애의 모습, 수록된 직소와 그의 고백을 듣고 감정이 우울해질 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다시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가설계의 바른용어는 기획설계입니다

건축상담과 기획설계는
유료입니다

건축사의 상담과 기획설계는 건축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